

## 시나리오 1. **가제: 괜찮아?**

**남주: 유온**

**여주: 나라**

### #1. 첫만남, 골목길

나라에게 우유가 부어진다. 옆에서 키크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한 여학생이 나라의 머리를 잡으려고 한다. 이때, 유온이 그 여학생의 손을 잡고 말린다. 여학생들은 유온의 손을 뿌리치고 기분이 상한 듯 자리를 뜬다. 유온은 바로 나라에게 다가가 체육복을 걸쳐준다. 그리고는(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 #2. 호프집, 골목길

모두가 술에 취해 주변이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 한창, 나라가 MT 도중 술에 취해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 그를 눈치챈 유온이 함께 나와 나라를 챙겨준다. 나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유온에게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 #3. 데이트 중 손잡기, 공원

맑고 청아한 어느 날, 유온과 나라가 MT 이후 커플이 되어 첫번째 데이트를 한다. 둘은 벤치에 앉아(또는 돛자리 위에 앉아) 맑은 날을 즐긴다. 유온은 나라와 손을 잡고 싶어 손을 내밀려고 하지만 망설임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다 잠시 이를 눈치챈 나라가 유온의 망설이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살짝 얼굴을 붉히며 (걱정하는 표정으로)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 #5. 실내 데이트 중 임테기를 확인한 유온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 자취방

조금 시간이 지난 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날, 둘은 유온의 자취방에서 실내 데이트를 한다. 같이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저녁을 먹은 뒤 설거지를 하며 장난치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실내 데이트 도중, 나라가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배를 잡고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에 가서 임테기를 한 나라는 결과를 본 뒤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한다. 유온은 그 소리에 놀래 화장실로 뛰어들어간다. 두 줄이 그어진 임테기를 확인한 유온은 나라를 달래려고

한다. 유온은 당황했지만 나라의 안정시킬 방법을 생각하다가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나간다. 유온이 임태기를 보고 자신을 버리기 위해 나갔다고 생각한 나라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한다. 이때, 유온이 다시 들어와 나라의 손을 잡더니 투박하지만 열심히 만든 것 같은 뺨끈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준다. 나라는 그런 유온의 행동을 보며 서서히 울음을 그치기 시작한다. 나라의 안정을 확인한 유온은 나라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듯 (결심한 표정을 지은 채)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 #6. 신생아 육아 중, 가정집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 모두가 잠든 어느 새벽, 어디선가 어린 아기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나라는 눈을 감고 (힘들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상체를 일으킨다. 육아로 힘들 나라를 생각한 유온은 일어나려는 나라를 다시 눕히면서 본인이 가겠다는 듯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 #7. 퇴근 후 유아기 육아 행복한 가정,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가정집

다시 시간이 지난 뒤, 유온이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온다. 두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달려와 유온을 반긴다. 유온은 달려오는 아이들을 반기며 두 팔로 안는다. 나라도 유온이 온 것을 확인하고 잘 다녀왔냐는 듯 살짝 웃으며 반겨준다. 인사를 나눈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나라가 표정이 급격히 나빠지더니 피를 토한다. 그 후, 뒤를 돌아 살짝 눈물이 맺힌 채로 유온을 바라본다. 유온이 우당탕탕 뛰어들어와 나라의 몸상태를 확인한다. 유온은 걱정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나라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 #8. 불치병 판정을 받은 아내, 병원

당일, 응급실에 누워있는 나라와 그 옆에 앉아있는 유온이 서로의 손을 잡고 진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별일 아닐 거라는 듯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나라와 아주 불안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온. 의사가 응급실에 들어와 둘에게 나라의 불치병에 대해 알려준다. 결과를 듣고 나라는 충격에 빠지고, 유온은 괜찮을 거라며 나라의 손을 잡고 안심시킨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유온이 나라에게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9. 아내의 병에 오열하는 남편, 병원 복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을 짚고 병원 복도에 서있는 유은, (온화한 표정으로) 아내를 안정시켰던 그는 분노한 표정을 지은 채 소리를 지르며 벽을 3 번 내리친다.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으며 오열한다. 유은밖에 없는 병원 복도가 싸늘하기만 하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했던 말을 자신에게도 세뇌하듯이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괜...찮아...”

**#10. 간이 침대 누워있는 아내, 절망하는 남편, 병실**

유은이 나라를 간호하기 위해 병실에 있다. 나라가 초췌한 모습으로 유은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그의 손 위에 살포시 자신의 손을 올려둔다. (말을 하기도 힘든 듯한 표정으로) 한 글자씩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유은은 그런 나라의 손을 가져가 이마에 갖다댄다. 그리고는 울면서 입모양으로 말한다.

“괜찮,아. 괜,찮아”

**#11.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는 아내, 병실**

점점 눈을 뜨고 감기가 힘들어지는 나라,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기를 3 번 반복한다. 그러더니 눈을 아예 감는다. 주마등이 스쳐지나간다.

**#12. 남편과의 추억 주마등, 병실**

유은과 나라가 처음 만난 순간, 나라의 임태기를 보고 유은이 프로포즈를 했던 순간, 아이들과 함께 유은을 반기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주마등이 끝나가고 유은이 나라에게 많이 해주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퍼진다.

“~~~괜찮아~~~”

(Black Out)

**#13. 괜찮아, It's okay, 大丈夫...다른 나라 언어로 괜찮아 반복**

화면에 "괜찮아"의 텍스트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쓰여지면서 마무리된다.